

# 中國의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現實과 展望

李 根<sup>(1)</sup>

1928년 이후 과거 14년간의 中國의 經濟改革의 성과는 연평균 9%의 실질성장의 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고성장은 초기에는 農業部門 주도에 의한 것이고, 84년 이후에는 非國營企業의 급성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영 대 비국영, 계획 대 시장, 지방 대 중앙, 그리고 도시 대 농촌으로 표현되는 二重構造는 천안문사건을 낳는 경제적 배경을 이룬다. 1988~90년간의 긴축조정 이후 중국경제는 社會主義 市場經濟라는 새 표어 아래 다시금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계속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大中小型 國營企業의 존재와 이와 관련한 소비재 과잉과 증공업 침체라는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資源配分の 效率性 問題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취약성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중국지도부는 私有化를 장기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우리는 中國經濟 成長의 의미를 적시하고, 중국을 경제상대로서 또한 경제파트너로서 어떻게 우리의 이익에 끌어들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1. 序

20세기 末 세계경제에서 중요 사건을 꼽는다면, 中國經濟의 성장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과거 舊蘇聯을 중심으로 한 유럽공산권의 붕괴와 커다란 대비를 이루면서, 나아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경제거적을 창조하여 2000年代에는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1978년말 이후의 ‘改革·開放’ 이후, 과거 14년간 10%에 가까운 실질성장을 이룩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1992년 말 소위 ‘社會主義 市場經濟’라는 새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市場經濟化를 통한 고도성장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本稿는 中國經濟의 과거 14년간의 개혁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를 행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 2절에서 改革·開放으로의 전환의 배경을 검토하고, 제 3절에서는 개혁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제 4절에서는 현재 중국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망을 해본다. 끝으로, 中國經濟와 韓國經濟와의 관련을 論함으로써 結에 대하고자 한다.

(1) 본고의 초고는 서울대 경제연구소 주례세미나에서 발표되었으며, 이에 유용한 제언을 주신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2. 改革·開放으로의 轉換의 背景과 初期條件

중국은 왜 1978년말 改革·開放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가? 중국이 경제나 정치적으로 어떤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인가? 중국의 방향전환은 직면한 어떤 위기 상황이 대한 국면전환적 전술이었다기보다는 장기적인 대비성격을 포함한 적극적인 공세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은 1949년 소위 新中國의 건설 이후 毛澤東主義 아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정치의 경제에 대한 우위 때문에, 경제가 가령 文化大革命의 시기와 같이 극심한 교란과 불안정을 겪기는 하였지만, 소위 세 가지 統一, 즉 땅, 말, 밥의 統一을 진시황 시대 이후 다시 한 번 이룩하여, 10억 가까운 인구의 경제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에 효과적이고, 따라서 전후 복구나 초기의 도약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개별 경제주체의 자기 이익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결정보다는 집단적 가치나 이대 올로기의 공유에 기초한 道德的 誘引(moral incentives)에 의존하고, 또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으로 한 경제운영은, 그 장기적 성과, 특히 動的 效率性 측면에서 문제를 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기적 동적 효율성의 문제가 항상 즉각적으로 체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니다. 동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즉 다른 나라들과의 동적 경쟁에서 뒤져 상대적 격차가 발생하더라도, 그 체제가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 사회구성원을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로부터 차단할 수 있다면, 그 체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孤立主義의 장기적 비용과 그 한계를 고려하고 나아가서 세계적 규모의 경제성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야심을 가진 사회주의국가라면,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예가 중국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주변의 자본주의 諸國, 즉 일본, 한국, 대만의 고도경제성장에 자극받아 舊體制의 지속이 의미할 수 있는 상대적 격차 축소의 요원함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중국의 改革·開放으로의 전환은, 체제내적 성장원천의 장기적 고갈에 대한 우려, 대외적 체제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對外開放은 세계 자본주의 주도의 국제분업으로부터의 이득을 계산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대외개방이 내부에 급격한 충격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통제가 중국공산당 주도의 지속에 의해 확보되어야 했기 때문에, '점진적' 개혁방식이 선택된 것이다.

문화혁명의 충격과 아울러 정치적 세대교체가 있었고, 1976~78년의 3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78년말은 이런 방향전환의 적기였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개혁·개방 개시 직전의 초기조건으로서의 中國經濟의 상황을 보면, 개혁 이전의 中國經濟는 기본적으로 社會主義 計劃主義의 한 변종이나 그 典型이라 할 소련과 비교하면, 계획의 범위나 정도에 있어서 중앙집권도가 훨씬 약하였고, 계획방식도 소련의 긴박(taut) 계획에 비해 훨씬 느슨한(loose) 형태를 취하였으며, 특히 농촌은 集體所有制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덜 계획화되어 있었고 지역적으로 자립적인 분권주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中國經濟의 근본문제는 역사적으로 10억이 넘는 방대한 인구를 위한 안정적 식량공급과 농촌의 파잉노동력과 관련된 고용안정이었다.

### 3. 改革의 內容과 評價

우리가 현 시대에 접하고 있는 社會主義 計劃經濟에 있어서의 개혁은 70년대 말 이후 80년대의 현상이지만, 舊社會主義圈에 있어서의 개혁은 과거 50년대 말, 그리고 60년대 중반에 두 차례 改革波高(wave)가 있었으며, 현재의 상황의 진전은 개혁의 제 3 파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社會主義 개혁은 일정한 반복성을 가지고 나타났으며, 따라서 왜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자꾸자꾸 개혁을 필요로 하였던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의문이 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는 바, 그 하나는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문제의 근원을 계획에 있다고 보고, 계획을 지양하고 시장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인데, 이 견해의 연장선상에 랑게류의 市場社會主義論이 놓여 있다 하겠다[Lange(1964)]. 또 하나의 견해는, 문제의 근원을 국가에 의한 소유집중에서 찾고, 舊유고식의 소유의 진정한 사회화, 사적 소유부문의 부분적 인정, 또는 광범한 私有化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개혁전략은 우선 자원배분기구 문제에 관해서는 漸進的 市場化를 택하였고, 소유권 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사적 소유부문의 발생·성장 허용과 舊國有部門(국영 소기업)의 부분적 사유화와 사회화(집단소유화) 전략을 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경제의 중추라고 여겨져 온 大中型 國營企業(소위 全人民所有企業)에 대해서는 국유제를 유지한 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자율경영의 신장의 방법을 택하였다[Lee(1993a)].

실제적 개혁조치의 집행에 있어서, 중국은 필요하다고 상정된 모든 개혁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하여 ‘段階的’으로 실시하였고, 각각의 개혁조치를 모든 대상기업 모든 단위에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일부분에 실시한 다음,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하는 ‘實驗後 擴散’의 방식을 택하였다.

과거 14년간의 중국의 개혁은 농촌개혁 위주의 제 1 단계(1978~84)의 6년간, 도시로의 확대와 천안문사태까지의 제 2 단계(1984~89)의 5년간, 그리고 천안문사태 이후 현재까지의 제 3 단계(1989~92)의 3년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개혁의 제 1 단계에서는 농촌개혁이 그 핵심이었던 바, 이는 과거 모택동이 창안한 행정조직과 경제조직의 통일로서의 人民公社가 해체됨에 따라, 집단농업이 개별 가족농업으로 대체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고, 이는 농산물가격의 漸進的 市場化와 결부되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도시부문의 개혁은, 국영기업이 전에는 전부 국가에 상납해오던 이윤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여 노동자의 보너스기금, 복지후생기금, 기업투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분적 시장화를 포함한 자율성을 증대하는 각종 실험이 일부 기업에서의 실시 이후 점차 확산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였다.

개별 가족농업의 성장과 농산물 가격의 上向化·自律化는 농업생산의 뚜렷한 증가를 낳아, 이는 개혁실험에 대한 집권층의 자신감을 북돋웠고, 또한 동시에 중국 최대의 이익집단인 농민을 개혁의 지지자로 획득하여, 개혁지속의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Lee(1993b, ch. 4)]. 이에 따라 1984년 10월 개혁의 도시로의 확대가 공식 결정된다.

도시부문으로 개혁의 확대는, 첫째, 80년대 초 이후 진행되어 온 小型 國營企業의 사적 기업가에게의 경매·임대의 확대, 둘째, 과거 사실상 국영기업과 똑같이 통제운영되어 왔던 집단소유의 集體企業의 주식회사화, 셋째, 大中型 國營企業에 있어 契約經營責任制(원명은 承包制)와 工場長責任制의 확산을 통한 명시적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黨政의 분리, 넷째, 새로운 자발적 사적 소유기업(소위 個體戶와 私營企業)의 성장 허용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시기 농촌에 있어서는, 인민공사 해체로 그 발생의 계기를 맞았던 각종 새유형의 기업(각종 集體企業, 合作企業, 個體戶, 私營企業)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농촌기업, 통틀어 소위 鄉鎮企業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 도시와 농촌을 통틀어 非國營企業의 급속한 성장은 바로 이 시기 中國經濟 성장의 원동력(engine)으로서 공헌하며, 동시에 이는 농업생산의 정체로의 반전과 도시 大中型 國營企業의 정체와 대조를 이룬다. 이 시기의 中國經濟의 심각한 다층의 二重構造, 농촌의 활성화와 상대적인 도시의 정체, 국영기업의 정체와 비국영기업의 급성장, 사적 이윤, 입

금·보너스 등 소비성자금의 축적과 대비되는 국가예산수입의 정체와 재정적자 등과, 이에 추가하여 아울러 자원배분기구로서의 계획과 시장의 불안한 공존의 二重構造는 각종 문제를 야기하였다[Lee(1991, ch. 9)].

즉, 과거의 垂直的인 자원배분구조의 부분적 와해가 진행된 상태에서, 아직 水平的인 자원배분구조(즉, 시장메커니즘)가 충분히 자리잡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자원배분에 관한 권리를 쥐고 있는 관료들이 직권의 남용으로 사적 이익을 챙기고, 또한 사적 부문의 신흥 기업가들은 유통·시장질서의 교란을 틈타 비정상적 이득을 누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런 상황 하에서, 1988년 중반 이후의 급격하고 심각한 고율의 인플레이션은, 개혁과정에서 得을 누리는 자와 損害를 보는 자(주로 도시의 하급 고정봉급생활자, 지식인)를 구분지었으며, 후자는 사회의 부정부패, 특히 관료의 부정부패를 내걸고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천안문사건의 경제적 배경을 이룬다.

1989년 6월의 천안문사건 이후의 경제적 상황진전은 부분적 再中央集權化(re-centralization)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국민소득에서 중앙정부재정 비중의 提高, 국영기업의 비국영기업(특히 鄉鎮企業)에 대한 우위 재확인, 중요물자의 계획에 의한 분배 재강화, 투자용대출 통제강화 등의 조치를 포함하였다. 이 중 중앙정부재정의 비중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개혁 이후 기업이윤의 사내유보 허용 등의 분권화 조치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경제적 효율의 제고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지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감소와 중앙의 지방에 대한 경제권 약화로 귀결된 데 대한 중앙정부의 불만을 반영한 재중앙집권화 조치이다[Lee(1991, ch. 9)]. 또한 국영기업의 對鄉鎮企業 우위성의 재확인은, 비국영부문의 급성장으로 국영 대 비국영기업간의 경쟁이 증대되어 가다가 이것이 1988년 이후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중요 국영기업들이 필요한 원자재, 에너지 등의 확보에서 비국영기업에 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鄉鎮企業 등이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각종 인플레이와 관련된 부작용, 자연환경 파괴, 공해창출 등의 폐해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비등해진 것과 관련된다. 실제로, 몇 천에 이르는 많은 수의 鄉鎮企業(사영기업 포함)들이 천안문사건 이후 은행대출 등의 통제, 세금추징 등으로 문을 닫거나 합병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Lee(1991, ch. 9)].

위의 각종 규제의 강화는 은행대출의 행정적 통제와 맞물려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른 실업증가와 그 사회적 영향을 우려한 중앙정부는 1990년 중반부터 다시 통제완화로 회귀하였으며, 鄉鎮企業의 고용창출효과를 제삼 강조·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말에 소위 3년간의 긴축 재조정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남에 따라,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는 다시 상승국면을 타기 시작하였으며, 한동안 주춤하였던 大中型

國營企業의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재개되었다. 특히 80년대 말,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단되었던 가격개혁도 재조정기간의 물가안정에 힘입어 다시 실시되었으며, 이런 면에서 中國經濟의 市場化는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은 아직 완비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상품시장에 관한 한 90년대 초에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 4. 中國의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問題點과 展望

1988~90년의 3년간의 재조정기 이후 다시 1991년부터 상승국면을 타기 시작하여 1992년에 호황에 도달한 中國經濟는, 자신있게 소위 ‘社會主義 市場經濟’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이전의 ‘有計劃의 商品經濟’를 대체하였다. 이전의 ‘계획이 있는 商品經濟’에서 商品經濟란 용어는, 중국 당국이 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 市場經濟란 용어 대신 사용한 말로서, 이전에는 계획과 시장을 적절히 조화·결합하여, 國有企業은 계획 하에 非國有企業은 시장 하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새로운 ‘社會主義 市場經濟’란 계획을 폐지하여 국유, 비국유할 것 없이 모든 종류의 기업이 다같이 시장 하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社會主義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國有企業의 지속이다. 즉, 많은 수의 비국유·사유기업이 성장하고 있더라도 국가의 중추 산업부문에서 國有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한 그 경제체제는 社會主義體制이다는 것이고, 실제로 중국은 전면적 사유화를 하지 않고도 이만큼의 성공을 거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표시하고 있다 [馬洪(1993)].

현재 중국의 ‘社會主義 市場經濟’는 앞에서 말한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모순의 근원을 설명하는 두 가지 견해, 즉 계획이 문제냐 국유가 문제냐의 두 시각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계획을 포기하고 시장을 도입하였고, 동시에 비국유부문의 성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유부문의 전면적 사유화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둘째 시각은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中國經濟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사유화되지 않은 大中小型 國有企業部門이다.

1992년 현재 대중형 國有企業의 1/3이 적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1/3은 장부상 흑자이나 실제상 적자라고 한다(*China Daily*, 1992. 7. 30). 이런 배경 하에서 작년 7월 중국정부는 大中小型 國營企業의 經營機制를 轉換하는 조례를 발표하여, 국영기업의 자율권을 더 한층 확대하였다(*人民日報*, 1992. 7. 27). 그러나 이런 식의 자율권 확대조치는, 과거 14년간 國有企業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그야말로 수많은 비슷한 시도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전

체의 2/3가 실질적 적자라는 상태로까지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적 조치의 미흡함과 아울러, 미국유부문의 급성장에 따른 경쟁심화라는, 국영기업 입장에서 볼 때의 경제환경 악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국유부문의 침체는 곧 國有企業 주도 하의 침체된 중공업과 非國有企業 주도 하의 과열 내지 초과공급 조건 하의 경공업이라는 二重構造를 낳았다. 과거 社會主義 計劃經濟는 코나이가 그의 저서 『부족의 경제』(*Economics of Shortage*)에서 말했듯이[Kornai(1980)] 초과수요 내지는 공급부족으로 특징지워졌으며, 따라서 초과공급 상황, 즉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을 창출하는 것은 개혁의 성공의 주요척도 중의 하나였다[Byrd(1987)]. 중국은 소비재 시장에서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초과공급 상황을 창출하였지만, 자본주의와 다른 점은 소비재 공업부문에 과잉 투자된 자본이 다른 중공업부문으로 자동적으로 재배분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民間 私的 資本의 축적량의 제한성 뿐만 아니라, 중공업을 국유 위주로 유지하려는 정책의도, 상대가격구조와 관련된 중공업의 저이윤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二重構造는 중국이 國有企業을 주식회사화함으로써,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확대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랑게의 市場社會主義 모델의 결정적 결점인 자본시장의 부재, 즉 사양기업이 문을 닫고 성장기업이 자본을 확대하고 유망기업이 창업되는 메커니즘의 부재와도 상통한다[Lange(1964)].

현재 중국은 大中型 國有企業의 전면적 사유화를 실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國有企業을 주식회사로 바꾸는 실험을 하는 한편, 關聯 國有企業들을 묶어 ‘企業集團’으로 육성해 나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Lee(1990)]. 이는 한국이나 일본경제에서 보여지는 재벌기업 또는 거대 계열기업군의 존재에 영향을 받은 듯이 보이나, 집단내 구성원 기업들간의 관계가 주식보유에 기초한 명확한 소유·경영통제 관계가 확립되지 않는 한, 이들 社會主義의 ‘集團企業’들이 자본주의적 기업집단과 같은 행동양식과 성과를 보여줄 지는 의문이다[Lec(1990)]. 물론 55개 특별기업집단을 국가가 지정하여 각종 권한과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그러한 기업집단의 성과가 기타 기업들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개연성은 있다.<sup>(2)</sup>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國有企業의 私有化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非國有企業이 계속 급성장하여 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거나, 또는 國有企業의 주식회사로 전환을 통한 사유화가 진전되어 국가가 이들 기업에서 소주주로 전락하게 될 때, 中國經濟의 ‘社會主義性’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國有企業을 계속 현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사유화할 것인가의 선택이 갖는 장기적 의미의 중요성 때문에 중국지도부는 딜

(2) 55개 특별기업집단에 관해서는 金益洙(1992)를 참고하시오.

테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 선택의 방향은 경제의 성과에 달려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國有企業들이 기업집단화나 외자유치(1工場 2體制 方式 포함) 등의 기타 방법으로 사유화되지 않고도 얼마나 성과가 호전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 5. 結 : 中國經濟와 韓國經濟

80년대 초에 中國經濟와 韓國經濟가 상호 경제교류를 시작하던 시기에 쏟아져 나온,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 혹은 경쟁성에 관한 많은 글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중국은 방대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기초로 자원집약적, 노동집약적 경공업품들을 수출하고 한국은 자본 또는 기술집약적 상품을 수출할 수 있으므로 兩國 貿易은 보완성이 높고, 최첨단 기술을 체화한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보다 중간기술에 기초한 한국기업의 직접투자가 중국에 더 적당하고, 중국측에서도 한국기업의 직접투자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이다.

위와 같은 생각은, 한국과 같이 開放小國(small open economy)에나 맞는 特化(specialization)論理를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중국을 走馬看山적으로 본 후 중국이 한국의 50년 대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은 과거 한국이 걸어온 패턴을 충실히 되풀이할 것으로 보는, 그야말로 소박한 소망에 불과하다. 이런 류의 생각의 예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한국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나 노하우(know-how)가 중국에 유출되어, 중국의 경쟁력이 증가되어 도리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소위 부메랑 효과),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다른 신흥공업국이나 선진자본이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갖고 그 상품으로 우리의 국내·해외시장을 점령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마치 대단한 기술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보수적 태도는 적극적 견지에서 문제해결을 찾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李根(1993)].

14년간의 경제계획을 거친 현재의 중국은, 非國有企業 주도의 소비재산업의 급성장으로 과거 그들이 손에 만져보지도 못했던 TV, 냉장고, VCR의 과잉공급에 이어, 팽창된 소비구매력이 주택, 자동차, 전화로 옮겨 가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는 國有企業과 외국기업의 합작투자, 기존 國有企業 시설의 외국인 임대 또는 합작투자 대상화를 통하여 경영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벌써 노동집약적 부문의 직접투자보다는 첨단기술집약적



직접투자를 유치하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한국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도 중국은 1992년부터 아세안 4개국을 앞질렀으며[李根(1993)],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투자의 급감하는 상황과 그 반대의 중국의 상황은 대조적이며, 이 대조가 갖는 장기적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국기업이 선진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밀리는 二級의 소비재라도 중국 정도의 시장에서는 승산이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 하면 웬만한 질의 소비재는 이미 중국내 기업에 의해 충분히 생산되고 있으며, 같은 품목이라도 고급상품만이 돈많은 중국소비자를 얻을 수 있으며, 각종 수입제한을 고려할 때 이는 중국 내의 직접투자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중국 국내시장이 점점 더 크게 열리고 있는 이 때에 한국기업은 중국으로의 직접투자를 이용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Porter(1990)가 주장하듯이, 경쟁력의 源泉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國際化없이는 견고한 국제적 경쟁력의 완성·유지는 힘든 것이며, 韓國經濟는 그리고 한국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나라의 특성을 우리의 競爭力 提高의 한 요소로서 적절히 포섭·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社會主義性의 유지 문제가 어찌되었든, 중국공산당의 사회에 대한 장악력은 현재 확고하며,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산당 지도하에 이룩해 놓은 經濟的 成果에 기초한 장악력이며, 이는 성과가 좋은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中國經濟가 社會主義性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관해서가 아니라, 中國經濟의 성장의 의미를 적시하고, 중국을 경쟁상대로서 또한 동시에 경제의 파트너로서 어떻게 우리의 경제이익에 끌어들이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880-6367  
팩시 : (02)888-4454

## 參 考 文 獻

- 金益洙(199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 現況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馬洪(1993): “中國의 社會主義 市場經濟,” 초청강연회 발표논문, 서울, KDI,  
李根(1993): “韓國企業의 對아세안 直接投資 現況과 展望,” 서울, 產業研究院.  
人民日報, 1992.7.27.

- Byrd, William(1987): “The Role and Impact of Markets,” in G. Tidrick and J. Chen(eds.), *China's Industrial Refor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for the World Bank).
- China Daily*, 1992. 7. 30.
- Kornai, Janos(1980): *Economics of Shortage*, Amsterdam, North Holland.
- Lange, Oskar(1938):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aperback Reprint(1964), New York, McGraw Hill.
- Lee, Keun(1991): *Chinese Firms and the State in Transition: Property Rights and Agency Problems in the Reform Era*, New York, M.E. Sharpe.
- \_\_\_\_\_(1993a): “Property Rights and Agency Problem in China's Enterprise Reform,”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June.
- \_\_\_\_\_(1993b): *New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Interacting Capitalism and Socialism*, New York, M.E. Sharpe.
- Lee, Keun, and Shelley Mark(1990): “Privatization in China's Industry,” *China Economic Review*, 2, 2, 157~173.
- Porter, Michael(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s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